



김금단

1969년 함경남도 풍산생
0.25시대를 거쳐서, 최말까지 종이 전통문자로 풀려 세도형
이후 전 가족이 몰락이 좋아짐
여지없이 무명의 외가 친척들과 함께 1년 후학 때 남쪽으로 무작정 피난길에 오른
경남 거제도 외딴섬 수몰소에서 3년간으로 투병중, 1987년 당시 18살나이의 사당



윤금이

1967년 전남 순천시생
직업인으로서의 일신적 삶을 안고 17살에 상경
여성생활을 거쳐 순천, 광주, 동두천 등지를 전전하며 미군상대 서비스업에 종사
1980년 동두천의 보산동에 위치한 월세 4만원 짜리 자기 집에서 작업중
상대인 제네스 미술이라는 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살해당함 사망당시 22세
특별으로 인해 작업물이 합출되었던 때 시인의 성격과 몰락병이 묻혀있는 상태로 발견

조경숙 〈진혼곡〉 각각 85 × 42cm

■ 미술가 산책/ 여성, 그 다름과 힘

여성주의 미술 가능성 타진

“페미니즘전 첫발” 기치 여성작가 19인 참가

이주현/ 미술평론가

특 정 집단이나 그룹의 목소리를 앞세운 미술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미술’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현실을 다루고 여성의 입장을 천명하는 여성주의 미술 또는 페미니즘 미술 역시 정치미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미술은 조형예술적 관심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이념적 관심을 내포하고 있고, 또 궁극의 목표가 도덕적 실천이므로 입장을 공유하는 다른 사회 분야와의 연대가 반드시 뒤따른다. 페미니즘을 기치로 지난 3월26일 강남 서초동 한국미술관(537-6414)과 경기도 용인 마북리 갤러리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 ‘여성, 그 다름과 힘’ 전(4월25일까지)은 바로 그런 인식 아래 기획된 매우 야심찬 정치미술전이다.

미술평론가 김홍희씨가 구상하고 윤석남씨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여성작가 19인이 참여한 이 전시는, 스스로를 ‘본격적인 페미니즘전의 두 경을 여는 효시’로 자임하고 있다. 그 당찬 목소리를 성과값에 기대 축약하고 따져보기 전에,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전시의 비중은 충분히 헤아려지고도 남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성적 모순 고발

윤석남씨는 지난 86년 김인순, 김진숙씨와 함께 ‘반에서 하나로’를 표제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주의미술전을 연 뒤 지금까지 김인숙씨와 나란히 우리나라 페미니즘미술의 ‘대모’로 ‘군림해 온’(가부장적인 표현을 피할 도리가 없다) 중량급 작가이다. 특히 지난해 그의 개인전 ‘어머니의 눈’은 우리시대의 어머니상을 너무도 탁월하게

표현, 늘 예술적 성취의 모자람으로 콤플렉스를 느껴온 진보 미술계에 ‘헤비급 펀치’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김원숙, 유연희씨는 푸근하고 따뜻한 축축한 여성의 정서적 특질을 서정적 조형언어에 실어 구상으로 처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중진화가이다. 이번 전시에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의 흐름이 반영된 작품을 출품했다(김원숙〈벼랑위와 아래〉, 유연희〈생각에 잠겨〉). 조경숙, 서숙진씨는 사진·만화·광고 등 대중들과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성적 모순을 통렬히 공박해온 매우 선진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게릴라 걸’들이다. 조씨는 분단사가 낳은 우리 여성의 비극을 윤금기와 김금단을 통해 본 〈진혼곡〉으로, 서씨는 성인만화 등의 말풍선을 따라 제작한 〈그-그녀〉 연작을 내놓았다.

이외에 김명숙, 최선희, 엄정순씨 등 평면회화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온 작가들과 여성의 수공예적 능력을 형질작품으로 살린 김수자, 하민수씨, 설치미술작품으로 주목을 받아온 양주혜, 안필연, 류준화씨, 사진·비디오쪽의 박영숙, 김정하, 홍미선, 홍윤아, 오경화씨 등이 초대됐다. 설치미술과 행위예술을 병행해온 이불씨는 이번 행사에서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설치작품 〈무제〉는



양주혜 <에로틱한 스폰지>

스폰지에 유화 190×150cm



이불 <무제>, 철제침대위의 이불에 실크스크린과 재봉질

이불 <무제>, 철제침대위의 이불에 실크스크린과 재봉질

작가가 (덮는) 이불을 직접 만들어 자신의 전나 모습을 그 위에 실크스크린으로 전사하고 여성을 지칭하는 온갖 단어를 재봉틀로 박아 나열한 작품이다. 이불이 침대에 놓여 있는 모습이나 침대다리에 붉은 액체병과 캡슐병을 이어놓은 모습이 다소 섬뜩하기까지 한 작품이다.

기획자 김씨는, 인본주의의 전통 위에 있는 기존 페미니즘운동은 "인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남성적 담론인 이상 엄밀히 말하자면 여성의 남성화 지향운동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 과거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여성의 본질을 보는 데 전시

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 김인순씨 등 민미협을 중심으로 여성주의미술과 '노동미술'을 병행했던 작가들은 이번 전시의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만큼 기존의 흐름에 대한 부정과 해체의 시각이 강한데, 이는 자칫 좌익 모험주의가 과거의 인류유산을 전면 거부했던 것처럼 일종의 급진적인 청산주의로 흐를 위험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 경향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다원주의 등의 문화현상과 연결해 보는 한편 어떤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함으로써 가야될 길을 궁구해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성적 특성이나 감수성을 드러낸 작품들을 '여성성'의 범주에 넣고 의식적으로 여성성을 노출하거나 여성문제를 제기한 경우를 '여성주의'의 범주에 넣어 '포괄적인 여성성의 줄'로 묶인 여성주의미술의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또 현실추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사실 이같은 고민은 페미니즘미술을 넘어 작금의 페미니즘운동 전체에 내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중요한 사실 몇가지가 있다. 모더니즘·민중미술 등 '남성적 쟁투'에 따라 종속적으로 갈렸던 여성작가들이 여성이란 이름 아래 하나의 주체로 엮였다가 사실과 정치분야에서는 아직 여성정치가 많이 만나고 있을지라도 문화에서는 '우먼 파워'가 지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소화돼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27



김원숙 <벼랑위와 아래>

김원숙 <벼랑위와 아래>, 캔버스에 유채 121×167cm

문화계 단신



신현중전

3월29일~4월9일

선화랑

선화랑이 주최하는 제9회 선

미술상 수상 작가전이다. 신현중씨는 산양, 영양 등 빨달린 짐승의 조각작품을 통해 현대문명의 생태학적 문제점을 비판해왔다. 이번 전시에도 수많은 작은 나무조각을 접착제로 붙여 만든 등신대 크기의 양, 염소 등 우제목 동물 조각들이 출품된다.



강산에 콘서트

4월1일~3일

미도과 상계점 메트로홀

라이브 무대에 강한 강산에

가 2집앨범 출반을 기념해 갖는 콘서트. 강산에는 이번 공연에서 객석과 무대의 구분을 없애는 등 독특한 공연 스타일을 선보인다. '예림랄라', '리구요', '더 이상 더는', '넌 할 수 있어' 등 자신의 히트곡과 1집에서 심의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한 '돈'을 새롭게 만들어 부른다.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4월1일~21일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예술의 전당이 기획한 '오

늘의 작가 시리즈의 첫 번째

인물인 극작. 연출가 오태석의 작품. 인당수에 뛰 어든 심청이 20세기 서울을 구경한 온 용왕을 따라 나섰다가 세상에 절망한다. 연극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해 인신공양을 다시 결행 한다고 <심청전>을 패러디했는데 오씨가 직접 연출한다. 예술의 전당은 이 무대를 시작으로 4개월 동안 <아프리카>, <자전거>, <비날하우수> 등 그의 작품들을 이상춘, 김철리, 이운택씨의 연출로 잇달아 올린다. 폐막작품은 작가가 직접 연출할 신작 <도라지>.

